

#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성대히 진행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대회보고를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진당, 진군, 진민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창건 70돐을 강성변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끝없는 영광과 자부심에 넘쳐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한 력사적인 진군길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제7차 군사교육일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두산 절세위인들께서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면서 주체적인 군사교육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혁명무력강화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주체적군사교육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위에 군사정치일군양성의 모토까지인 평양학원을 세우주시고 축하연설과 첫 강의도 해주시면서 짧은 기간에 정규적혁명무력건설에 필요한 지휘성원들을 훌륭히 키워내시어 진군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는 세계적인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 군사교육사업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도록 하시였으며 전후에도 진군간부화, 진군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군종, 병종, 전문병지휘성원들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군사학교들을 창립해주시고 그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인민군대를 백전백승의 강철의 전투대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진군위업을 믿음직하게 보좌하는것을 천위전사의 본분으로 내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평양학원과 만경대혁명학원을 비롯한 군사학교들을 찾으시어 군사교육사업이 수령님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선군혁명령도의 전기간 주체의 군사교육사업을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홍보의 정을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군사교육일군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면서 학생들을 참담게 키우는 튼튼한 뿌리가 되고 주추들이 되어 성스러운 교단에서 한생을 빛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데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지난 기간 군사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고 격진장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는 백두산호랑이들을 키워낼수 있게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교훈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신 뜻을 받들어 군사교육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므로써 위대한 김정은혁명강군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그들은 교육의 모든 공정과 계기를 철두철미 수령의 유훈판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일관시키고 당성단련과 혁명화를 적극 다그치는 과정으로 전환하며 모든 교직원, 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진위투사,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 도덕의 최강자로 역세게 준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성스러운 혁명의 높은 교단에 선 사명과 임무를 간직하고 선군혁명의 핵심골간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당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지니고 그 어떤 명이나 평가도 바람이 없이 군사교육사업에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한 군사교육일군들에게 조선로동당과 온 나라 전체 인민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 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각급 군사학교들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군사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골간들인 지휘성원들을 훌륭히 키워내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군사교육사상과 교육전통은 사상도 품모도 대원수님을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교육사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유능한 지휘성원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는 진로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정일군사연구원, 만경대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시어 군사교육기관들이 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교육기관들이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서고

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된 수령결사옹위군, 당군으로 만드는데서 뿌리가 되고 기반차적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최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군사교육부문에서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교육기관들에서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쥐고 5대교양을 강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영광스러운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시키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으며 군사학교 교직원들을 백두산혁명강군의 지휘성원들을 키워내는 직업적인 혁명가, 우리 당이 아끼는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불러주시며 사랑과 믿음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였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으며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명도로 군사교육발전의 최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드리였다.

그는 건군사에 특기할 군사교육일군들의 대회합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군사교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므로써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고 백두산대국의 강성변영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할 유능한 군사인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내기 위한 군사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장령들인 차경일, 전용국, 림태근, 김정득, 황강철, 군판들인 안학범, 리영진, 리영남, 김성남, 리용준, 한동균, 장은주, 리광섭, 오현덕, 김현봉, 정기중, 최광성, 김영순, 김동길, 박병식, 백학덕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적군사교육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시는

3 면으로 계속

